

함평군,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132억원 규모 기업 유치

(주)서준(주)천복금형2공장 등 미래 차 산업 핵심 기반 마련

전남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2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함평군은 23일 (주)서준(대표 최명현), (주)천복금형2공장(대표 김순곤)과 전남도, 함평군이 공동으로 이날 총 132.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평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군 관계자, 최명현 (주)서준 대표, 최재현 상무, 김순곤 (주)천복금형2공장 대표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업은 함평 빛그린산업단지 내 14,007.6㎡ 부지에 자동차 플라

스틱 부품 및 엔진 접합부품 제조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최명현 (주)서준 대표이사과 김순곤 (주)천복금형2공장 대표이사는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부품 생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제품 개발과 수요 확대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인재 채용, 지역 생산품 구매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의 군수는 "이번 협약이 양 기업의



발전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항포구 지능형 CCTV 구축 사업' 협약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는 5월 21일(수)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서재창)과 '항포구 지능형 CCTV 구축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사업은 관내 어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취약 지대인 항구 및 포구에 지능형 CCTV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빛본부는 올해 한수원지원사업비 총 2억 1천6백만 원을 집행하여 계마항 일대에 지능형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능형 CCTV는 영상 관제뿐만 아니라 AI 영상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어업인구가 고령화되고 1인 조업 인구가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지능형 CCTV가 사고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면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지능형 CCTV를 통해 안전사고가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공공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개인 맞춤형 외식문화 확산에 발맞춰 '1인 상차림'을 주제로 제10회 순천미식대첩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순천 대표 '1인 한상맛집'을 발굴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개하여 지역 관광 및 외식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순천미식대첩'은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은 지역 대표 음식 경연 대회로, 지금까지 총 134개 업소를 선정·홍보하며 순천 미식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 왔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음식점은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음식 설명서를

오롯이 나를 위한 한상, 제10회 순천미식대첩 개최 정성과 품격을 담은 1인 한상, 순천에서 맛보다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순천시 관광과 미식관광팀(061-749-5795)으로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 및 위생심사를 거쳐 2차 블라인드 현장 평가(전문가·소비자)로 진행되며, 최종 10개 업소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 이후 개인화된 외식 트렌드를 반영해, 한식은 물론 일식, 중

식, 양식, 퓨전, 비건 등 다양한 콘셉트의 '1인 한상'을 통해 순천 미식의 다채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식대첩을 통해 정갈하고 품격 있는 순천의 맛을 널리 알리고, 외식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드림스타트, 제2차 외부 슈퍼비전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 드림스타트는 지난 22일 아동 통합사례관리의 역량 강화와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2차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외부 슈퍼비전은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아동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전문적인 자문과 피드백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선희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중점 분석과 함께, 아동 통합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드림스타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무안군 제공



구례군 오지마을 생활 불편 제로화 사업 본격 추진

전남 구례군은 지난 21일 문척면 도금마을과 중산마을 25가구를 시작으로, 관내 4개 오지마을 100가구의 노후 전기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복지기동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계층이 많은 오지마을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군은 먼저 대상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각 가구의 전기 설비와 생활 불편 사항을 조사한 후, 노후화되거나 불량한 전기 설비(콘센트, 누전차단기, 배전함, 전구 등)를 교체하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구례/한정호 기자



영암군 지역사회,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1일 군청과 월출산기차랜드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영암경찰서, 영암소방서, 제8539부대 3대대,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사,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등이 참여한 이날 훈련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영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을 반영, 풍수해·산사태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재난 초기 대응체계 가동으로 시작한 훈련은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통합지원본부 설치 ▲현장 수습 및 복구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토론·현장훈련으로 나눈 실제 상황처럼 전개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